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37장 1-11절

날짜: 4월 19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던 고집 센 야곱의 일생은 타고난 자기 생각, 사상, 지혜 등 자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상, 생각, 뜻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편견'과 '편애'입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하여 다른 아들들보다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고, 이것이 형제들의 미움과 불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이 된 인류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취향, 내 생각, 내 판단이 주인이 되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 자아가 죽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판단이 아닌 분별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써 미움을 샀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꾸민 꿈 이야기를 통해 그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곡식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는 꿈은 인간적으로 보면 시기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꿈은 사람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의 가치이며, 둘째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생활의 원동력이고, 셋째는 삶의 목표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 이후 생애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는 것,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독점적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받으셨습니다. 요셉이 귀족의 옷인 채색 옷을 입고 목자로 양을 친 것은, 장차 왕이자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아버지께 고했듯, 예수님도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과 죄를 들춰내셨기에 죄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 억울한 감옥으로 보냈듯이,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 억울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의 고난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주의 주가 되어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는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고 새 피조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었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거듭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대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부활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하며 "내가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소망 없는 인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동과 실수조차도 정반대로 이용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내가 점점 예수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놓으셨습니다. 내 감정이나 육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근본이 바뀌지는, 예수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귀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실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The Shadow and the Substance: Joseph and Jesus

Passage: Genesis 37: 1-11 (ESV)

Date: April 19, 2026

Pastor: Dong Suk Chung

Jacob's long and troubled journey was the outward manifestation of a stubborn heart—a life shaped by his own thoughts, his own wisdom, and his own will. In the same way, the lives we lead today are simply the outward manifestation of our inner thoughts, desires, and will.

After losing his beloved wife Rachel, Jacob likely wanted to live out the rest of his days in peace. Yet, there remained something unresolved within him: prejudice and favoritism. Because Joseph was the son of his old age, Jacob loved him more deeply than his other sons and made him a coat of many colors. This became the seed of hatred and resentment among the brothers.

This mirrors the state of humanity after eating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 a state in which "I" became the master. Loving some more and disliking others according to my own preferences, thoughts, and judgments is precisely a reveals a deep-rooted brokenness within us. Only when the "self" dies through the cross of Jesus do we begin to see others through His eyes. Only then does a relationship of discernment and love, rather than judgment, take shape.

Joseph earned his brothers' hatred by reporting their wrongdoings to his father, and that hatred reached its peak through the dreams he shared. The dream of sheaves, the sun, moon, and stars bowing to him — from a human perspective, this was something to envy; but from God's perspective, it was the history of salvation

yet to be fulfilled.

Dreams carry three meanings for a person. The first is the value of one's existence. The second is the driving force of life that enables one to overcome hardship. The third is the goal of life. After Joseph dreamed his dreams, he came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his life and gained a boldness that refused to yield to reality. If we possess a life that is reborn through the Word of God, that must become our dream. We should not dream of the perishable things of this world; rather, becoming like Jesus and being united with Him must be the true goal of our lives.

The life of Joseph is a foreshadowing of what Jesus Christ would come to do. Just as Joseph received his father's exclusive love, Jesus was acknowledged by God as "my beloved Son". The fact that Joseph wore the coat of many colors — a garment of nobility — and tended sheep as a shepherd is a foreshadow of Jesus, who would come as both the King and the Good Shepherd.

The reasons the brothers hated Joseph also mirror the ministry of Jesus. Just as Joseph reported his brothers' sins to his father, Jesus came as the Light and exposed the darkness and sin of the world, therefore He was hated by sinners. Just as the brothers sold Joseph for 20 pieces of silver and sent him to an unjust prison, Jesus was also sold for 30 pieces of silver and suffered an unjust death on the cross.

Yet Joseph passed through the suffering of prison and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and Jesus, through the cross and resurrection, became the Lord of all lords and ascended to the heavenly throne. The fact that Joseph became a ruler who saved his brothers shows the victory of Jesus Christ, who through the death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saved us and made us new creations. Just as

Joseph's dream became reality, we too must believe that we have been reborn in the Lord as those who rule over the world.

God is the One who provides a solution every time human beings create a problem. Satan persistently tries to corrupt humanity and drive them toward death, but God gave His solution in that very place of death — the sacrifice of the Lamb. Through this sacrifice, God brought forth life that the enemy could not extinguish; the devil cannot imitate the resurrection because that is the domain of God alone.

Jacob, believing Joseph to be dead, wept bitterly and cried out that he would go down to his son in mourning to Sheol. This is the final image of humanity without hope. But within God's will, Joseph had not died — rather, he was becoming the prime minister of Egypt, preparing to save his family and his people. In the same way, God takes even the evil actions and mistakes of human beings and turns them completely around into grace. He causes grace to abound all the more where sin abounds.

Today, many Christians believe in Jesus only through knowledge. But knowledge merely makes a person proud — it does not give spiritual life. We must eat the Word. We must eat the Word so that we are gradually transformed into Jesus. God has already cleansed us through the blood of Jesus. Do not trust your emotions or your flesh; rely solely on the Word of God. It is my earnest desire that this extraordinary blessing—the transformation of the very foundation of your faith into "becoming Jesus"—becomes a reality among us through the precious work of the Holy Spirit.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